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102호 [루계 제24880호] 주제104(2015) 년 4월 12일(일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 하 여 앞으로!

김 정 은 동 지 께 서 경 양 공 단 계 이 른 2 항 공 역 사 건 설 장 을 현 지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단계에 이른 평양 국제비행장 2항공역사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

김양건동지,리재일 동지,리병철동지, 김 여 정 동 지 , 김 능 오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를 현지에서 강기섭 동지,림광웅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건설에 동원 된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 애 하 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10월 건설중 에 있는 평양국제비행 장 2항공역사를 현지 지도하시면서 당의 주체 적 건 축 미 학 사 상 의 요구대로 우리의 멋, 우리의 특성, 우리 의 민족성이 살아나게 건설할데 대한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관철에 떨쳐나선 해당 부문과 군인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평양국 이르렀다.

민족을 상징하는 백호를 형상하니 하시였다. 현대적인 건축물이지만 민족성이 살 아난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항공 살아나게 내부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하 역사라는것이 알린다고 만족을 표시 였으며 특히 금속건재로 마감한 항공역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출발 였다. 홀, 대기홀, 도착홀, 지하주차장 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비행장 2항공역사건설이 마감단계에 마크는 물론봉사망들의 간판과 선전물들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사상관철전,당정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려객들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제비행장 2항공역사건설이 완공단계에 과 손님들이 리용하는데 편리하면서도 건축미학적으로나 조형예술적으로 흠잡 및 급양봉사,정보봉사,의료봉사 등 각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국 을데없이 출발홀과 대기홀의 공간비례 봉사망들을 조화롭고 특색있게 배치해야 제비행장 2항공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설정을 잘하라고 하였는데 용도에 맞게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려객들의 편의를 최 건물외벽에 용감하고 대담한 우리 홀의 형성을 합리적으로 하였다고 말씀 대로 보장할수 있게 출발홀파 도착홀의

현대적인 건축물인 항공역사의 품격이 문제를 강조하시였다.

이른것만큼 내부마감시공을 잘하여야 을 예술성, 직관성, 문화성이 보장되게 잘 옹위전의 기수, 돌격대답게 남은 공사를

선 미학성,선 편리성이 구현되게 상업 공간들에 봉사망들을 더 배치할데 대한

받아들이면서도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을 말씀하시였다.

만들어 붙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용도에 맞게 질적으로 제작하여 비치하고 물로 완전무결하게 일뗘세우리라는 크나 상품진렬을 예술적으로 잘하며 항공역사 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영업봉사를 국제적기준에서 할수 있게 준 비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려객들과 손님들이 모든 홀들에서 비행 _ 자들은 또다시 현지에 나오시여 건설 기의 리착륙모습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봉사망들을 꾸릴 때 세계적인 추세를 영상표시장치를 설치해주는것이 좋겠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항공역사의 장식도 우리의 기호에 맞게 비행장 2항공역사의 건물은 손색없이 웅 가슴 불태웠다.

시공에서 나타난 일련 의 부족점만 바로잡으 면 항공역사를 훌륭히 완공할수 있다고 하시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 국제비행장 2항공역사 건설에서 정해진 기일 을 지키는것도 중요하 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높은 민족적자존 심을 안고 2항공역사 를 혁명의 수도 평양의 관문답게 우리 나라 사 회주의제도의 자랑스러 운 면모, 문명국의 척 도를 직관적으로 보여 줄수 있게 완공하는것 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 애 하 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 도 해당 부문과 군인 건설자들이 평양국제 비행장 2항공역사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게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적해주신 문제들을 시급히 퇴치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 주시였다.

김 정 은 동 지 께 서 는

질적으로 잘함으로써 평양국제비행장 상품진렬대와 가구도 세계적수준에서 2항광역사를 선군시대의 기념비적건축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건설에 동 원된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군인건설 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높이 받들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국제 로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할 일념으로

본사정치보도반















경 정 은 통 지 께 하 OH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3돐경축

卫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판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기 위한 성스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러운 투쟁의 길에서 전당, 전군, 전민의 영광을 드리고있다.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태양조선의 크나큰 자랑이고 행운이다.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뜻깊은 날을 맞이한 온 나라 천만군민은 흠모심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령도, 위대한 헌신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3돐 으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백승의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1일 혁명의 수도 한길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 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 대회장인 4.25문화회관은 우리 당파 국가를 위대한 김일성,김정일동지의 당과 국가로 빛내이시며 선군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을 온 세상에 떨쳐주시는

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의 태양상이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를 배경으로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영광스러 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백두산모형과 《경축》이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을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가 대회장에 나붙 어있었다.

>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륙군,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군기들이 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더욱 세차계 일으켜 당창건 일흔돐과 조국 세워져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대회에는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 판, 공장, 기업소 일군들, 로력혁신자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최룡해동지, 최태복동지, 현영철동지, 리영길동지, 양형섭동지,리용무동지,오극렬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 조선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 기관 일군들, 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모범적인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공로자

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동지가

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 호를 높이 받들고 창조와 혁신의 불길을 해방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대경사의 해로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 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조선중앙통신】

김정은동지께서

교육원조비와 장학 보내시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3돐을 맞으며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 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일본돈으로 2억 3 804 은 지금까지 모두 161차에 걸쳐 일본돈으로 만¥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총련에 보내시 475억 6 919만 390¥에 달한다. 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재일동포 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본사기자

경 OH ōŀ 명 소

소식을 2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 씨 야 의 따 쓰 통 신 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164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고 하 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군부대에 쌍안 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해 통신, 벌가리아신문 《Z뉴스》도 이 소 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건설장을

나 라 에 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식을 보도하였다.

> 그이께서는 항일유격대식부대지휘관 리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 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해병들의 생활에 관심을 돌리시였다.

로씨야의 신문 《아르구멘띠 이 팍 띠》, 에호 모스크비방송, 인터네트통 신 뉴스루. 콤,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금산포젓갈가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기네 국내, 국제방송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동렬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현지지도하신 소식, 제7차 전국체육 인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올렸다. 네팔신문 《아르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그이께서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한 어분사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 을 게재하였다.

본사기자

칭 울 송

민 차 술 전 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온 나라 강산에 뜨겁게 굽이치는 가운데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 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 되였다.

이번 축전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뜻깊은 올해 를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며 사회 주의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의 불길이 세 차게 타오르는 속에 열리는것으로 하 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커다란 관심 을 모으고있다.

중앙과 지방에서 선발된 50개 단체에 1 500여명의 예술인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는 축전은 예술단 부류와 예술선전대부류, 기동예술선 동대부류, 예술소조부류로 나뉘여 진행된다.

축전개막식이 11일 동평양대극장

에서 진행되였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의 개막식 장야외에는 축전선전화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축전기발들이 나붓기고있 개막식장에 들어서는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축전을 통하여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고 당의 령도 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할 열의가 넘쳐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 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개막식장정면에 모셔져있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이라는 글발과 축전마크가 무대에 부 각되여있었다.

최룡해동지, 양형섭동지와 김용진 내각부총리,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 인 박춘남문화상, 관계부문 일군들, 축전참가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 되였다.

박춘남위원장이 개막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사회주의조선 의 시조로,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태양절을 가장 성대하게 경축하는것은 우리 인민만이 지닌 특전이고 자랑이라고 말하였다.

전체 축전참가자들과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경모와 열화같은 충정의 마 음을 담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 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 여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다.

한없이 고결한 혁명적도덕의리 와 비범한 예술적천품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와 달이 갈수록 어버이수령님을 더더욱 못 잊어 그리는 우리 인민의 마음 을 헤아려보시고 인민예술축전 을 마련하여주신데 대하여 언급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진두 지휘하시는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 도 뜻깊은 올해에 진행되는 인민 예술축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 대경사로 빛내이 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고

말하였다.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은 확신을 표명하면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영원할 서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고결한 충정의 마 📉 음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드리는 억척불변의 신념 의 맹세,최후승

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이 그대로 춤 과 노래로 펼쳐지 는 뜻깊은 대정치 예술축전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참가자들의 드높

은 열의속에 이번 축전이 우리 인민 들에게 태양민족 의 존엄과 긍지, 자부심을 더욱 높 여주고 태양절분 위기를 고조시키 며 조국해방 일 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 는데 적극 기여 하게 되리라는

축전개막을 선언하였다. 지는 가운데 축전기발이 게양되 이어 개막공연이 있었다. 《조국찬가》의 선률이 울려퍼 였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모시여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창창한 미래에 대한 확신과 락판에 넘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3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 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당과 혁명, 우리 국가와 민족의 더없는 영광이고 행운이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 의 최고수위에 모심으로써 주체혁 명. 선군혁명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 지게 되였으며 김정은동지의 거룩하 신 존함과 더불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내 나라.내 조국의 장엄한 새시대가 열려지게 되였습니다.

지금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 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대를 이어 누 리는 수령복, 장군복을 심장깊이 절 감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나아가는 길에서 모든 영광을 맞이 하리라는 끝없는 희열과 신심에 넘쳐있습니다.

동지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출중한 자질과 정치실력을 지니시고 우리 당과 국가를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가장 걸출한 정치가이십니다.

우리 혁명에서 지난 3년간은 당과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관건적인 문 제들이 수없이 제기된 중대한 시기 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령 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 하며 최후승리를 위한 토대를 축성 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실로 방대한 시 대적과제들을 사소한 편향이나 우여 곡절도 없이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는 정치적기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세계정치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처럼 그처럼 짧은 기간에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확신성있게 이끌어 인민의 리상을 현실로 전변 시키시는 실력가형의 정치가, 만민이 지지하고 시대가 공감하는 정의로운 정치를 펼치시는 걸출한 령도자를 알 지 못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드팀없이 계승해나가는 순결한 도덕 의리의 정치입니다.

일찌기 만경대에 시원을 두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 전진하여온 태양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수산태양 궁전을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태양 의 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려주시고 전 국각지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심으로 써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억년 드놀지 않는 태양민족의 정신적기둥, 신념의 기둥을 튼튼히 세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 으며 김일성,김정일동지의 당과 국가, 군대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에 의하여 이 땅에는 성스러운 태양의 력사가 세세년년 흐르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지난 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정 치국 확대회의는 세상이 열백번 뒤 집히고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당과 혁명의 영원 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조선혁 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려는 우리 당 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한 정치적사변이였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의 탁류속에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수령의 사상 과 위업을 100% 계승하며 수령의 생전의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나가시는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펼치시는 정치의 위대성이 있고 숭고한 높이가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 며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인민중시의 정치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하늘 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들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들어나가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내세우신 인민존중의 정치리념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도 정권 도 군대도 인민을 위해 필요하며 인 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의 리익과 편 의를 최우선,절대시하는 원칙에서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시고 인민에 대 한 멸사복무정신으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고계십니다.

전체 인민을 사랑과 정으로 품어 주고 키워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버이품속에서 온 나라는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었으며 우리 당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결정체들인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이 하늘높이 솟아올랐습니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울려퍼지는 로동당만세소리, 《세상에 부럼없어 라》의 노래소리는 진정 인민존중, 인민 숭시의 정치들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온 나라 인민의 다함없 는 칭송과 매혹의 분출입니다.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불변의 신조로 간직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천만군민의 위대한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 켜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대중에 게 의거하면 이 세상에 점령 못할 요 새가 없다. 닭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도 깰수 있다는것을 지론으로 삼으시고 혁명적사상공세의 포문을 일제히 열도록 하신것은 우리 당사상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 중 요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주체의 사상론을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혁명의 천사만사를 해결해 나가시는 천출위인께서 우리 당과 혁명을 이끄시기에 이 땅에서는 《마 식령속도》, 새로운 조선속도와 같은 놀라운 속도가 끊임없이 창조되고있

으며 적들의 비렬하고 악랄한 반공 화국모략책동도 물거품으로 되고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는 견결한 혁명적원칙성과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화를 복으로 전변시키는 백승의 정치입니다.

오늘 우리 당과 국가가 나라의 자 주적존엄과 최고리익을 굳건히 수호 하며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혁명 과 건설을 배심있게 밀고나가고있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질을 떠나 생 각할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는 백두산악같은 신념과 의지,백두의 칼날같은 혁명 적원칙성과 투철한 반제자주립장을 지니시고 런전런승의 력사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감히 건드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종국적멸망을 선고하며 숨돌릴새 없 이 다불러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공격형의 정치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 게는 필승의 신심을 주고 원쑤들에게 는 준엄한 철추가 되고있습니다.

오늘 국제사회계가 우리 당의 정치 를 《결심이 확고하고 결단성이 있는 정치》, 《신념과 배짱으로 하는 초강 경의 정치》, 《한다면 무조건 하는 빈 말을 모르는 정치》라고 높이 격찬하 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습니다.

필승의 신념을 지니시고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확신성있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최후승리의 려명은 밝아오고있으며 우리 공화국 의 대외적권위와 지위는 날로 높아 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는 세련된 령도예술과 능숙한 수완으로 기적만을 창조하는 가장 위력한 정치입니다.

일찍부터 정치, 군사, 경제와 문화 의 모든 분야에 정통하시고 현대과 학기술로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의 무물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도 견줄 수 없는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빛나는 예지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대변혁이 일어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습니다. 하기에 과학기술부문과 농산, 축산

수산, 경공업과 건설부문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이 가닿는 곳마다에서 전진의 돌파구가 열리고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놀라 운 기적이 창조되고있습니다.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최상의 문명을 최대의 속도로 창조하도록 하시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적인 사업전개원 칙이며 투쟁방식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어 단숨에 도약하는 혁명적대담성과 언제나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내미는 완강한 실천력, 시대의 표준, 본보기를 창조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련대적혁신이 일어나게 하는 비범한 수완으로 온 나라에 최첨단돌파전의 열풍, 집단적경쟁열풍이 료원의 불길 처럼 타번지게 하시였습니다.

참으로 희세의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야말로 세계를 앞서나 가는 비약과 변혁의 시대이며 우리 의 힘으로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 상을 마음껏 꽃피워나가는 부강번영 의 활무대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특출한

정치실록을 수놓으시는 나날에 조국 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백과전서적인 사상리론 적지침을 마련해주신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룩하신 최대의 업적 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후 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거창한 혁명실천속에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여 당건설과 무력건설, 경제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 켜나갈수 있는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 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수많 은 고전적로작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보물고를 더욱 발전풍 부화한 불멸의 문헌으로 빛나고있습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나갈 데 대한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 진시킬데 대한 로선, 김정일애국주의 에 관한 사상과 혁명적인 사상공세 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사상리론들은 그 독창성과 과학성, 거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우 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심장을 완 전히 틀어잡고있습니다.

백두산대국이 영원히 승승장구할수 있는 강력한 정치, 군사, 과학기술적 힘을 백방으로 다져주신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룩하신 커다란 업적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운 주체100년대진군이 시작되는 력사적시점에서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사회주의강성국가이라는 고전적명제 를 제시하시고 정치와 군사, 경제와 과학기술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놀라운 전변을 안아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대오를 당중앙을 중심으로 하나의 고동치는 혼연일체의 대오로 다져 주시여 최후승리를 위한 정치사상적 담보를 튼튼히 마련하시였습니다.

동지부대를 이루고 하나의 심장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혁명 위업계승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전당과 온 사회에 대한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신것은 주체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수호하신 특출한 업적으로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무력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만장약되고 우리 식의 다양하고 위력한 타격수단들로 장비된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 전시키시였습니다.

한몸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최전방초소들과 포연서린 화선들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시며 인민군지휘 판들의 작전지휘능력과 전략전술적 안목도 틔워주시고 전군에 명사수, 명포수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정력적 인 령도에 의하여 군력강화에서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졌습니다.

전군에 박력있는 화선식정치사업이 공세적으로 진행되고 일당백기상이 나래치는 빨찌산식훈련열풍과 군인 생활개선을 위한 힘찬 투쟁속에서 인민군대의 모든 대대, 중대들이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체질화한 최정 예전투대오로, 당중앙위원회의 뜨락 과 잇닿아있는 병사들의 정든 고향마 을, 고향집으로 전변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 기술을 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전반적과 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 어올리시였습니다.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 고 최첨단돌파전을 벌리는 벅찬 투쟁 속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 학화, 정보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새 세기 산업시설의 본보기, 표준으로 되는 수많은 공장들과 현대적인 생산 기지들이 지식경제강국, 문명국의 체 모에 맞게 훌륭히 일떠섰습니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 에 의하여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 사국,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 히 하는 첨단과학기술성과들이 련이 어 이룩되었으며 국보적인 명곡창작 과 자랑찬 체육성과들로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습니다.

참으로 지난 3년간의 하루하루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의 위대성이 산 현실로 과시되고 현시대 정치거장으로서의 절대적권위와 명성이 온 세상에 힘있게 펼쳐지는 긍지높은 나날이였습니다.

끝없는 환희와 격정이 넘쳐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혁명의 명맥을 꿋 꿋이 이으시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쳐주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삼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우리 당이 승리의 한 길로 이끌어온 주체혁명위업을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야 합니다.》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동지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기에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며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 이것 이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모 두가 새겨안은 철의 진리입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의 운명이시며 삶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 으로, 목숨으로 결사용위하며 일편단심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를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과 국가로,

적으로 구현해나가는 강력한 정치적 무기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우리의 일심단결을 천백배로 다지며 인민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를 전면

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중이 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 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 이 받들고 김정일애국주의열풍, 새로

중제일주의를 당과 국가의 모든 활

더욱 세차게 일으켜 당창건 일흔돐 과 조국해방 일흔돐을 빛나는 로력 적성과로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 을 제1차적인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 며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용위전 의 제일기수인 인민군대의 투쟁기풍 과 일본새를 따라배워 당의 방침과 지시를 끝까지 판철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각급 당조직들과 인민정권기관, 근 로단체조직들에서는 뜻깊은 올해를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산림복 구전투와 세포지구 축산기지, 과학기 술전당건설을 비롯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대비 약, 대혁신을 창조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 하며 근위부대운동의 불길높이 싸움준 비완성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인 민군대를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 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위적국방광업을 첨단과 학기술에 의거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철저히 세 워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 시키며 전민이 조국의 안전을 결사 수호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선군의 위력으로 내외분렬주의세력 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 일의 대통로를 기어이 열어나갈것이 며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 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 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세계 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용기 백배, 신심드높이 전진 또 전진해나 아갑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제 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 술축전 참가자들이 11일 꽃바구 올랐다. 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혁명 적문학예술의 빛나는 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청송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사 전통을 창조하시고 주체예술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축전

참가자들은 태양영생의 언덕에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절세위인들의 동상에 꽃바 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 가 인사를 드리였다.

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 회주의문명국건설에 적극 이바 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에 굳게 뭉쳐 태양의 노래, 위인

지해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무도회장들은 경애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대표단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대 표단 리론활동과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1일 일본

령도로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 대표단성원들은 비범한 사상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까자흐스딴공화국 외무성대표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표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1일 바를릐바이 싸듸꼬브 순회대사 를 단장으로 하는 까자흐스딴공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였다. 화국 외무성대표단이 경의를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수호를 위한 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손님들은 세계자주화와 평화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 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훈장보존실들과 단장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년 학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3돐경축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11일 진행되였다.

김정은원수님을 우리 당과 국가 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선

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빛내여 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모여온 청년학생들로 흥성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들에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의 노래가 울려퍼지 며 무도회가 시작되였다. 참가자들은 비범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대담한 혁명실천, 숭고한 은 이 땅우에 강성번영의 새시 애국헌신으로 백두산대국의 존엄 과 국력을 만방에 빛내여주시는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온 나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개선문, 평양체육관광장을 라 청년전위들의 한결같은 마음 을 담아 최대의 영광을 드리면서 설레이였다.

경축의 춤바다를 펼쳐나갔다.

의 나라》,《그 품이 제일 좋아》 를 비롯한 노래에 맞추어 춤률 동을 이어가는 참가자들의 가슴

《변이 나는 내 나라》, 《인민 을 창조하여온 전세대 청년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사회주의수호 전과 강성국가건설의 격전장마다 에서 청춘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 쳐갈 참가자들의 열정과 기백으 로 하여 무도회분위기는 시간이



대를 열어주시고 인민의 모든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뜨겁게

영웅조선, 천리마조선의 기적

【조선중앙통신】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않으리 새 겨 진 위훈 조국은 잊지 청 춘 궤 도 에 \Box

毕 첱 쟁 闰 冯 ો ok 7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 과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를 다그쳐 끝내며 거창한 대자연개조와 대건설의 여러 전구들에서 청춘의 기념비를 높이 세워야 합니다.》

압록강,

저 멀리 백두성산에 시원을 두고 조국의 서북변기슭을 적시며 격랑쳐흐르는 력사의 강반에 청춘궤도가 뻗어있다.

첫 렬차의 기적소리 북변산천에 메아리 치던 1980년대로부터 근 30년이 지난 그 위훈을 어머니조국은 잊지 않을것이다.

오늘날 그 청춘궤도를 보다 더 튼튼히 다 지기 위한 거창하면서도 격렬한 개건보수

에서 결사전을 벌려온 선군청년전위들은 지난해말 북부철길전구간의 구조물공사를 드디여 승리적으로 결속하였다.

어제날의 선렬들과 선배들처럼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불타는 애국충정을 안고 600여리의 청춘궤도에 더운 땀을 아낌없 이 뿌린 위대한 김정은시대 청년전위들의

빨 찌 산 전 구

주체 1 0 0년대의 마감해인 2 0 1 1년 이였다.

장들마다에서 《조선청년행진곡》을 힘차게 부르며 해주—하성간 철길공사장에서 발휘 되였던 청년건설자들의 기적과 정신, 혁명적 이며 김일성조선은 앞으로도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 언제나 어버이장군님과 선군혁명령도 의 길에 함께 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는 나라의 철도운수 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장군님께서 이처럼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사업을 청년동맹에 맡겨주신것은 청년동맹 조직과 청년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의 표시이 라고, 청년동맹에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 에 보답하기 위하여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를 잘하도록 하여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이런 믿음과 기대를 안고 우리 청년들은 저저마다 앞을 다투며

압록강기슭으로 달려왔다. 실로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는 단순한 경제

실무적문제가 아니였다.

방대한 철길개건보수공사를 청년동맹에 통채로 맡겨준데는 새 세대 청년들을 빨찌산 투쟁전구인 압록강반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새겨안은 쇠소리나는 선군혁명투사들로,

자기들을 성스러운 혁명전구에로 부른 당의 그 뜻을 뜨겁게 받아안았기에 현지에 도착한 청년들은 물결세찬 압록강가에 나 갔다.

우리 수령님 1 0대의 어리신 나이에 조선 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 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며 건느시였고 굽이 굽이마다에 항일의 피어린 자욱을 새기신 력사의 강이라는 생각으로 청년들의 가슴은

《야, 압록강!》

평양시려단의 대원인 오은향동무가 강물에 손을 잠그며 조용히 외울 때 은근한 목소리 가 뒤따랐다.

없소. … 저 룡일동문 백두산서사시의 철호,

려단장 양명호동무의 말에 처녀돌격대원 들은 손벽을 치며 환성을 터쳤다.

《그러니 우린 빨찌산… 야!》 《옳소. 우린 오늘의 빨찌산이요! 21세기

심장하게 하였다.

어떤 려단에서는 《혁명군의 노래》와 《유격대행진곡》, 《적기가》를 비롯한 항일 혁명군가와 《조선청년행진곡》과 같은 노래로 대대별합창경연을 진행하기도 하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와 항일혁명선렬 들의 투쟁자욱이 아로새겨진 뜻깊은 곳입 니다.

먼저 혁명사적지를 참판하는것으로써 우리는 려단의 압록강 〈도착성명〉을 발표할

정렬한 대오앞에서 함경남도려단장 황장춘

동무는 선언하듯 웨쳤다. 참으로 선군청년전위들의 압록강반에로 의 진출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백두의 행군길의 줄기찬 련속이였다. 자기들이 받아안은 성스러운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할 불같은 열정을 안고 청년

돌격대원들은 처음부터 드세찬 돌격전을 벌려나갔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라는 청천 벽력과도 같은 비보에 접할줄이야…

북부철길청년돌격대의 전체 지휘판들과 쳤다.

더 튼튼히 다져 충정의 궤도우에 하루빨리

어버이장군님을 모시자고 했는데… 장군님의 명령관철을 위한 전투를… 벌렸 습니다. … 그 명령판철전투가… 이제부터

눈물을 씹어삼키며 하는 북부철길청년돌 격대의 지휘판인 리금철동무의 말을 듣는 순간 억대우같은 려단장, 정치부려단장들은 더 세차게 어깨를 떨었다.

선렬들의 결사의 의지 오늘도 펄펄 끓어 번지는 빨찌산전구에서 새 세대 청년전위 들은 피눈물의 맹세를 다지였다.

공사를 자기들의 힘과 열정으로 본때있게 해제낀 우리의 청년들,

여러해동안 북방의 사나운 눈비바람속

억천만번 죽더라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을 끝까지 관철하자! 서로서로 어깨겯고 무쇠같은 주먹을 내흔

사전을 부르짖었다.

새로운 공격작전이 펼쳐졌다. 어떤 일이 있어도 눈이 많이 내리는 이 겨<mark>울</mark>철에 침목용통나무생산을 기어이 끝내 자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북부철길청년돌 격대의 전체 청년전위들은 가슴터지는 비통 함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며 산악같이

그러나 언제한번 나무베기를 해본적 없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아름드리나무를 찍어넘기고 아지를 치고 토막을 내여 끌어 내리는 벌목작업은 정말 힘겨운 《싸움》이

그 산지에서 아득히 높은 산등성이에 올라 한대, 두대 나무를 베여넘긴 다음 그것을 나무터까지 끌어내리는 거리 또한 10여리 길이였다.

사정없이 휘몰아치는 눈보라속에서 낮에 찍은 나무를 밤에 달빛,별빛을 조명삼아 한치한치 끌어내릴 때면 너나없이 흰눈을 뒤집어쓴 눈사람이 되군 하였다.

령하 30~40℃를 오르내리는 북방의 엄혹한 추위, 생소한 나무베기, 무릎을 치는

한치한치 결사의 각오없이는 전진할수 없는 그 투쟁과정은 청년돌격대원들의 신념 과 의지를 검증하는 엄격한 시험과정이나 다름없었다.

함경남도려단에서는 벌목전투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비상조치로서 결사대를 따로 조직하였다.

들을 기본으로 하여 무어졌다. 결사대는 이예

사나운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날 땀을 흘리며 앞장에서 통나무를 끌고 나무터 없었다.

직속 2소대 대원인 신광섭동무가 대렬에 끼워 통나무를 끌고있었던것이다.

당장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

신광섭동무의 젖어든 목소리가 모두의 가슴 을 두드리였다.

《저도 어버이장군님을 부르며… 장군님 을 목메여 부르며… 피눈물속에 맹세를…

외웠다.

피눈물의 맹세를 다졌지. 한몸이 그대로 침목이 되고 자갈이 되는 한이 있어도 우린 그 맹세를 끝까지 지켜야 해!

이런 결사의 정신력을 폭발시키며 청년 돌격대원들은 수십리눈길을 헤치면서 하루 몇대씩 끌어내리던 통나무를 2배, 3배로 끌어내리고도 성차지 않아 저저마다 이를

《…오늘은 정말 힘들었다. 네번째 통나무를 나무터까지 끌어다놓았 을 땐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잦아들었다. 이때 하늘을 올려다보니 북두칠성이 반짝

이고있었다.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가라는 노래가

마음속에서 저절로 울렸다. 소리없이 흐르는 눈물을 씻으며 나는

다시 산판으로 올랐다.》 함경남도려단 전종식동무의 일기장에

씌여진 이 글발을 보며 우리는 북부철길 번진 한결같은 열과 정을 가슴뜨겁게 읽 었다.

벌목전투가 그 얼마나 간고하고 처절하 였으면 려단장들도 대대장들도 대원들도 모두 량쪽어깨에 피멍이 들어 붕대를 감고 그 우에 어깨받치개까지 대였겠는가.

그러고도 피멍이 든 그 어깨에 또다시 끌 바를 메고 계속 통나무를 끌어내린 그들이

평안북도려단 2대대장이였던 리철민

3 0여리밖에 있는 침목용통나무를 공사 대대에 떨어졌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드세찬 돌격전을 벌려 짧은 기간에 와닥닥 해제낌으로써 한차분만 남게 되였다. 깊은 밤 대대안의 지휘판들로 운반전투를 조직한 리철민동무는 그 마지 막차에 또다시 자기가 올라앉았다.

그러다가는 쓰러지고만다면서 모두들

당장 내리라고 무작정 팔을 잡아끌 때 철민동무는 《나야 대대장이 아닌가.》라고 한마디하며 빙그레 웃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웃음이 될줄을 그 누가 알았으라.

가파로운 자작령고개길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져내리는 위급한 순간 그는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였다.

매일, 매 시각 빨찌산전구에서 싸운다는 각성이 가슴을 쳤기에 우리 청년전위들은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며 나가자 나가자 싸우 러 나가자라는 항일의 혁명군가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었다.

살아도 죽어도 오직 하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불굴의 의지를 안고 세찬 눈보라속에서 공격 또 공격하였 기에 불과 두달남짓한 기간에 침목용통나무 생산을 성과적으로 끝내는 위훈을 창조한 청년돌격대원들이였다.

갑자기 쏟아져내린 폭우로 하여 평양시 려단이 맡은 철길구간의 하천옹벽이 와르르 무너져내렸을 때였다.

수십m의 레루와 그 레루에 붙어있는 침목 들이 허공중에 둥둥 뗘있었다. 너무도 엄청난 피해였다.

철도일군들은 물론 기술자들까지도 도리 머리질하며 적어도 석달정도는 걸려야 피해 복구를 할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청년돌격대원들은 그들이 정한 9 0일을 5분의 1로 줄일것을 결심하였다. 말그대로 단숨에였다.

려단장으로부터 마지막대원에 이르기까지

연길폭란력사는 말이

침목교체와 자갈보충, 련적옹벽공사와 하천옹벽공사, 차굴공사와 중소구조물공사, 락석털기와 로반정리…

가지수를 꼽자면 열손가락도 모자라는 북부철길개건보수굥사중에서 차굴피복공사 는 가장 품이 많이 드는 전투중의 전투 였다.

한치앞도 가려보기 힘든 수백, 수천m의 캄캄한 차굴안에서 전지불을 비쳐보면 아찔 하게 높은 그 천정에 혼합물타입을 한다는 것은 영화나 텔레비죤화면에서밖에 본적 없는 일이였다.

전투를 며칠 앞둔 어느날 함경북도려단 에서는 모든 대원들이 현장을 돌아보게 하 였다.

《저런 천정에 어떻게 혼합물타입을?!…》 《우리가 꽤 해낼수 있을가?》

너무도 엄청난 전투과제를 놓고 돌격대원 들은 저마다 우려하였다.

문제는 정신력발동이였다. 그날 대원들과 마주앉은 차명철려단장은 돌격대원들에게 물었다.

《동무들도 잘 알고있지. 연길폭탄이 어떻게 태여났는가를.》

려단장은 자기의 주먹을 내흔들며 저력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빨찌산투사들은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냈소. … 사상을 틀어쥐면 이 맨주먹

으로도 폭탄을 만들수 있다는것을 연길폭 탄력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있지 않는가!》

려단장의 불같은 웨침을 들으며 청년돌 격대원들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연길폭 탄정신으로 싸울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불굴의 의지를 더 굳게 가다듬었다.

그런데 정작 전투에 진입하고보니 불리한 조건, 예상치 않았던 정황은 어느 려단, 어느 차굴피복공사장에서나 아닌 밤중의 홍두깨 처럼 때없이 수시로 들이닥쳤다.

처음 타입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평양시 려단 2대대의 작업현장에서는 뜻밖의

궁륭식으로 된 천정아치피복휘틀을 조립 한 다음 그 우에 혼합물을 채워넣었는데 시 간이 갈수록 그 량이 많아지다나니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휘틀이 순간에 와락 무너져 내렸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기세를 올리던 돌격 대원들은 뜻밖의 봉변앞에서 손맥이 풀려 쏟아져내린 혼합물더미우에 털썩털썩 주저 앉았다.

사실 그 2대대는 신대원들로 무어졌기에 려단에서 각별히 품을 넣던 대오였다.

대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해 2대대의 전체 대원들을 집합시킨 려단장은 《이제부터 2대대는 화약을 다져야겠소. 정신적화약을!》라고 힘주어 말하고 자기가 먼저 노래선창을 뗐다.

우리들이 나가는 곳 어렵고 겁날것 없어라 온 세계를 앞서나갈 광활한 앞길은 열렸다 산을 넘고 바다건너 우리의 젊은 힘 뻗

동무들아 어깨겯고 김장군두리에 뭉치자 승리는 우리의것 진리로 뭉쳐진 힘 바치자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바치자

서로서로 팔을 끼고 어깨겯고 《조선청년 행진곡》을 합창하는 청년돌격대원들,

드넓은 차굴안을 들었다놓으며 울리는 그 장엄한 노래소리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대를 이어 꿋꿋이 계승해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심장의 박동 소리, 투쟁의 승전고를 불러오는 오늘날의 연길폭탄《폭음》이였다.

용솟음치는 신심과 용기를 안고 단숨에 휘틀조립을 다시한 2대대의 청년돌격대원 들은 콩크리트타입속도를 높이면서 돌격전

부닥치는 애로와 난판을 맞받아 뚫고나 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고 또 달리였다. 한쪽으로 함마와 정대로 옹벽기초를 더 깊이 파헤치며 지지기반을 닦아나갔다. 청년들의 전투장은 밤이면 곳 곳에서 우등불과 홰불들이 타올라 불천지 거기에 음향기재에서 울리는 힘찬 노래 소리와 함께 함마질소리, 질통을 메고 맞들 이를 들고 쉴새없이 달리는 돌격대원들의

모두가 자기들이 정한 그 《시간표》를 맞추

기 위해 혼석마대, 세멘트마대를 지고 달리

웨침이 합쳐져 전투장은 불도가니마냥 끓어 번졌다. 한돌기 또 한돌기 옹벽을 쌓아올리며 돌 격전을 벌리던 끝에 마지막계선에 와서는 려단전체가 무거운 레루밑에 어깨를 들이

밀고 구간별수평맞추기를 해나갔다. 한사람의 구령에 따라 전체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우뢰와 같은 함성을 터치며 한구간 한구간 억세게 레루를 떠올렸다.

한몸이 그대로 침목이 되고 자갈이 되고 옹벽이 되여 두줄기 궤도를 받들어올리는 과감한 돌격전으로 피해복구전투를 단 13일 만에 끝낸 결사관철의 투사들,

이런 불굴의 용사들에게 복구된 철길을 따라 처음으로 통과하는 렬차의 기관사와 조사는 물론 렬차에 탄 손님들까지도 눈물을 훔치며 손을 흔들었다.

비바람에 절고 힘겨움과 피곤에 지칠대 로 지쳤어도 손님들을 향해 열정적으로 답 레하며 울고웃는 청년돌격대원들의 모습은 진정 어제날 빨찌산대원들의 모습그대로

백두산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백두의 연길 폭탄력사를 배우며 성장한 새 세대들이였 기에 그들은 항일선렬들처럼 부닥치는 애로 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차굴천정타입

장마철피해로 북부철길이 차단된 조건에서 공사용자재를 실은 렬차가 함흥, 김책, 길주 … 이렇게 동해선을 에돌아 혜산을 거쳐 내려 오는데 맞게 함경남도려단이 차굴천정피복 공사를 빨리 끝내야 그 렬차를 통과시킬수

있었다. 당의 명령을 기어이 관철해야 했기에 려 단장은 구체적인 정황판단에 이어 단호한

결심채택을 하였다. -각 대대마다 3개의 타입조를 《타격대》 로 하여 교대제로 24시간 련속 공격한다. -각 대대마다 3개의 운반조를 무어 철길소차로 혼합물을 24시간 련속 보장

-려단과 각 대대지휘부안의 모든 참모<mark>들,</mark> 지도원들, 후방일군들, 군의, 간호원들까지 총동원되여 매일 혼합물 백맞들이씩 운반

하기 위한 돌격전을 벌린다. 대대호상간경쟁으로 온 려단이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전투가 치렬해지면서부터는 아예 교대라는 개념이 없어지고말았다. 누구도 작업장을 뜨지 않았기때문이였다.

지휘관들도 대원들도 차굴안에서 언제 날이 밝고 저무는지 알지 못했다.

제일 견디기 힘든것이 잠이였다. 너무도 잠을 못 자다나니 잠간 앉아 식 사할 때에도 숟가락을 들고 머리를 떨구며 졸았고 혼합물을 이길 때에도 삽자루를 잡 은채로 단 몇초씩 서서 《말뚝잠》을 자기도

타입조는 타입조대로 온몸이 혼합물에 젖었고 밑에서 그것을 이겨올리는 보장조 도 줄줄 흘러내리는 세멘트물에 너나없이 절을대로 절었다. 그러는 속에서도 돌격속 도는 계속 높아졌다. 두달은 실히 걸려야 한다던 차굴천정피복전투를 단 보름동안 에 끝내고 렬차를 통과시키던 그날 함경

였다.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차굴천정피복전투였다면 그 전투에서 《1211고지》라고 불리운 어느 한 령의 차굴천정피복전투는 말그대로 《백병전》을

방불케 하였다. 사람들이 일명 1 0리차굴이라고 하는

《동지애의 노래》

동지애.

서로서로 정든 고향과 부모형제를 떠나 압록강기슭에서 잠도 함께 자고 고생도 함 께 하며 청춘의 자서전을 새겨가는 청년돌 격대원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소중한것은

에는 자기가 끄는 통나무뒤에 힘들어하는 동무의 통나무까지 이어서 끌었고 차굴 피복전투때에는 모닥불에 구운 따끈한 감자를 서로 주머니에 넣어주며 정을 나누 었다.

공사가 시작되던 첫시기부터 전투장에 달려나온 나이많은 평안북도려단의 곽춘선 동무는 자기의 아들딸과 같은 청년돌격대 원들을 위해 온갖 정을 다 쏟아부었다.

줴기밥을 들려주고 더운 물그릇을 입술에

려단, 황해남도려단이 동시에 전투를 벌리 였다.

때이르게 들이닥치는 추위로부터 공사장의 온도를 보장하기 위해 거대한 차굴의 량쪽 입구를 비닐박막으로 막고 그 안에서 청년 돌격대원들은 결사전을 벌리였다.

원형철근휘틀조립방법, 전면조립, 전면 타입방법과 같은 새로운 기술혁신안들과 광차에 의한 이동식 3 단발판, 골재운반을 위한 자동부림식철길소차와 같은 능률적인 작업기재들이 현속 창안도입되였다.

천고의 밀림속에서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든 선렬들의 그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 정신, 완강한 공격정신, 결사의 투쟁정신이 새 세대 청년들의 전투장에 그대로 불길

차굴피복공사를 끝내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속도는 백두산으로 달리는 우리들의 속도이다!

애국청년들의 불굴의 의지가 맥박치는 이런 힘있는 글발들이 차굴벽에 새겨졌다. 두줄기로 뻗은 궤도 하나를 놓고 3개 려단이 철길소차로 골재를 실어나르자니

여간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세멘트와 모래, 자갈과 막돌을 비롯한 골재를 앞세워 보장해야 타입속도를 높일수 있었기에 청년돌격대원들은 순간도

멈춤없이 돌격하였다. 일단 자기 려단시간이 되면 미리 대기시 켰던 4~5대의 철길소차를 동시에 왁 내밀 면서 청년들은 달리고 또 달리였다.

며칠째 떨어지지 않는 고열을 숨기고 계속 작업을 하던 평안북도려단 4대대 1소대 대원 림철순동무는 더는 몸을 지탱하지 못 한채 현장에서 쓰러졌다.

렸을 때 다른 명령은 다 집행해도 차굴에서 나가라는 명령만은 집행하지 못하겠다며 처녀는 두손으로 레루장을 꽉 틀어잡고 놓지 않았다.

당장 군의소로 후송할데 대한 명령이 내

가 보낸 편지를 내놓았다. 《…철순아, 네 아버지, 어머니는 어제날 북부철길건설장에서 청춘시절을 보냈단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들이 백두산을 바라 보며 산을 허물고 굴을 뚫고 철다리를 놓으

그러면서 그는 작업복안주머니에서 아버지

에 백두산을 안고 애국의 더운 땀을 바쳐야 한다는걸 부디 명심해다오. …》 마음속에 백두산을 안고 산다는것은 백두의 연길폭탄정신,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산다는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기

면서 철길을 건설한것처럼 너희들도 마음속

에 청년돌격대원들은 그날의 빨찌산투사들 처럼 용진용진 앞으로만 나아갔다. 함경북도, 함경남도려단을 비롯한 여러

려단들이 벌린 철다리기둥기초보강공사, 얼음덩어리들이 둥둥 뜬 차디찬 강물에 뛰여든 청년돌격대원들은 한쪽으로는 가물 막이를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물속에서 골재 를 나르며 결사전을 벌리였다.

뼈를 에이는 얼음물속에서 전투를 벌리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너대원들은 눈물속에 발을 동동 굴렀다.

이때 강복판에서 작업을 하던 함경북도 려단 1대대장 김광성동무가 웨쳤다. 《노래를 불러라!》

《적기가》가 울렸다.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얼음물속의 청년들도 함께 불렀다.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두석달은 걸려야 한다는 아름찬 공사를 단 며칠동안에 해제낀 불굴의 용사들,

기적이였다. 차굴피복전투장과 피암차굴건설장, 하천 옹벽공사장을 비롯한 북부철길개건보수 공사장 전구간의 모든 전투장들은 이런 기 적이 쉬임없이 창조되는 장엄한 격전장이 였다.

그 격전장에서 청년돌격대원들은 선렬들의 투쟁정신을 그대로 새겨안고 새로운 기술 혁신안들을 창안하였으며 남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독특한 공법과 철도건설기재들을

수많이 제작도입하였다. 성스러운 혁명전구에서 애국의 더운 땀을

동이로 흘리고있는 열혈청년들, 대를 이어 연길폭탄력사를 힘차게 엮어 가고있는 이런 믿음직한 후손들을 백두산은

미더운 시선으로 내려다보고있었다. 심장으로 부르며

가져다대면서 《경철이, 정신차려. 먹어야 또 돌격할게 아니야.》라고 안타깝게 말하 며 한명한명의 대원들을 식사시킨 려단의 우리 어머니.

더없이 진실한 이런 사랑은 그대로 힘을 낳았다. 하기에 청년돌격대원들은 매일매일 맹렬 한 돌격전을 벌리며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

하군 하였다. 어떻게 하면 동지들에게 더운 음식을 먹 이겠는가고 마음을 쓰던 황해남도려단의 후방참모 리만중동무는 여러겹으로 된 비닐 박막배낭안에 뜨거운 콩국을 퍼담아 메고 전투현장으로 매일 세번씩 다니며 땀을 흘리 였다.

전투가 끝나는 날까지 그 뜨거운 콩국배낭 을 메고다니다나니 그의 잔등은 온통 물집 투성이가 되였다.

군의들과 동지들이 잔등에 약을 발라

주며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모진가고 나무랄 때 만중동무는 말없이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소박한 그 미소속엔 동지를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임을 자각한 우리 청년들의 불같은 동지애의 세계, 열렬한 조국애의 세계가

그대로 비껴있었다. 막돌채취전투장에서 굴러내리는 바위돌 을 자기 몸으로 막아 동지들을 구원한 성, 중앙기관려단 1대대 대원 김금철동무에게 내린 진단은 절망적이였다.

의료일군들이 벌린 비상전투로 하여 가까 스로 사경에서 구원되였지만 오른쪽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것은 어쩔수 없는 의학적 결론이였다.

그러나 리경일려단장은 그 결론을 단호히

부정하였다. 《아니, 금철동무의 다리는 절대로 자를수 없소!… 려단이 있지 않는가. 려단이!》

려단이 있지 않는가! 그 말은 곧 동지들 이 있지 않는가! 라는 절절한 웨침이였다. 온 려단이 떨쳐나 피와 살, 뼈까지 서슴 없이 바치며 끝끝내 그를 완쾌시켰다. 병원 에서 퇴원하던 날 죽음의 나락에 떨어졌던 자기를 위해 피를 바치고 살을 바치고 뼈 까지 바친 더없이 고마운 동지들에게 인사를 하며, 두 다리에 힘을 주며 씩씩하게 걷는 김금철동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비

오듯 흘러내리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치 말자는 심장의 언약을 함께 한 동지, 천금주고도 살수 없는 귀중한 동지들을 위해 빨찌산투사들처럼 주저없 이 한몸을 내댄 끝날같은 청년들, 꽃같은

처녀들. 황해남도려단의 김복남동무와 김금성동무, 평안북도려단의 공경철동무와 함경북도 려단의 김은옥동무, 함경남도려단의 정혜성 동무들은 동지를 위해 자기의 한목숨을 서슴 없이 바치였다.

김일성청년영예상과 함께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도록 하시는 크나큰 정치적 신임을 베풀어주시였다. 한명 또 한명 그대들의 이름이 조국청사에 정히 아로새겨질 때 청년돌격대원들은 돌우에 피여나는 꽃은 그 정성 키운것이고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그 사랑 주신거라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라는 《동지애의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며 뜨거운 눈물을 쏟고 또 쏟았다.

이들만이 아니였다. 저 하늘의 별을 따다 앞가슴에 달아주고 싶고 금방석에 앉혀주고싶은 진주보석과도 같은 북부철길청년돌격대원들모두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차례 귀중한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였고 수많은 청년 돌격대원들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당원 으로, 높은 급의 국가수훈자로, 국가적인

대회의 대표로 내세워주시였다. 항일의 피어린 혁명전구에서 애국충정의 더운 땀을 아낌없이 뿌리고있는 미더운 청년 들을 보며,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속에 시대의 주인공으로 젊음을 불태우고있는 더없이 장한 백두의 후손들을 보며 사람들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야말로 성스러운 애국투쟁이라는 값비싼 철리를

다시금 사무치게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와 당중앙 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 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북부철길청년돌격대원들은 새로운

당이 준 성스러운 전투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한 승리자들이였건만 우리의 주인공들은 또다시 새로운 과제를 스스로 맡아안았다. 북부철길 수백리구간의 모든 역사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보수함으

열정과 투지를 안고 일뗘섰다.

맹세로 가슴불태우며 또다시 떨쳐나선 청년 돌격대원들. 압록강반의 청춘궤도를 대를 이어 우리 청년들이 말자!

이런 애국의 의지 맥박치는 청년들의

로써 1 0월의 경축광장에 당당히 들어설

가슴속에 불멸의 글발이 새겨져있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랑 과 믿음의 친필서한이 500만 청년들의 심장에 불을 달고있기에 지금 북부철길개 건보수공사장만이 아닌 백두산선군청년발 전소건설장과 세포지구 대규모축산기지건 설장,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우리 청년들은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측부대 의 영웅적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떨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에서 청년영웅이 되자!

당이 제시한 이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오늘의 하루하루를 기적과 위훈으로 빛내 이고있는 500만 조선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백두산대국은 총공격전의 포성을 더욱더 장엄하게 터치며 폭풍쳐달 리고있다.

조국은 자기의 끌끌한 아들딸들인 이런 애국청년들에게 창창한 래일을 맡기고 있다!

이어 지켜가는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를 친히 발기하시고 그 영예로운 파업을 청년동맹에 맡겨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전투 락판주의전통을 그대로 이어나갈것이라고 … 이런 우리 청년들이 있기에 백두에서 개 척된 주체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승될것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장속에 더 깊이 애국청년들로 억세게 준비시키려는 당의 의도가 어려있었다.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제부터 우리는 압록강용사나 다름 은향동문 꽃분이…》

청년빨찌산이란 말이요!》 각 려단마다 압록강과의 《상봉》을 의미

였다. 《동무들, 보다싶이 우리가 달려온 이곳은

대원들은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몸부림 압록강 굽이굽이 뻗어간 이 철길을 보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위대한 유훈판철전투로… 이렇게 될줄을 누가 알았 겠습니까!》

들며 청년대오의 지휘관, 정치일군들은 결

일떠섰다.

였다. 숙소에서부터 산지까지 10~20여리,

눈속에서의 통나무끌어내리기…

결사대 대장은 려단장, 부대장은 정치부 려단장, 대원들은 대대와 소대급 지휘성원 산판에서 침식하며 드세찬 공격전을 벌리

까지 내려온 려단장은 한순간 놀라지 않을수 정식 결사대 대원으로 임명하지 않은 려단

때문에 후송대책까지 구체적으로 세웠댔 려단군의가 호된 추궁을 받고있을 때

맹세를 다졌습니다!》 려단장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마음속으로 그래 우리모두 어버이장군님 령전에서

악물고 또다시 산판에 올랐다.

청년돌격대원들모두의 심장속에서 끓어

현장으로 운반할데 대한 전투명령이 그의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 인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북부철길청년돌격대의 모든 대오를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하였다.

전투를 기세차게 벌려나갔다. 함경남도려단이 맡은 차굴천정피복공사는 긴박한 전투과제였다.

한다.

처음 하루이틀은 교대제로 하였는데 점점

남도려단의 전체 지휘판들과 대원들은 서로서로 부둥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

그 길고긴 차굴안에서 평안북도려단, 평양시

정이였다. 그래서 침목생산을 위한 나무베기전투때

차굴천정피복공사때에는 너무도 피곤이 몰려 끄떡끄떡 조는 돌격대원들의 손에

은 2012 1.26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

김 한 식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력사를 전하는 은정차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창전거리 의 한복판에는 은정차집이 자리 잡고있다.

아담하면서도 모든것이 건축 미학적요구에 맞게 섬세하게 꾸 려진 사연깊은 이 차집에 들어 서면 금시라도 진달래꽃향기가 풍겨올것만 같다.

어버이수렁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이 넘쳐나는 뜻깊은 4월 의 이 봄날에 우리는 여기서 그 이름도 유정한 은정차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력사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파 같이 교시하시였다.

《은정차생산과 봉사를 잘하면 수령님께서 바라시던 대로 우리 인민들이 좋은 차를 늘 마실수 있게 될것입니다.》 차는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음

료이다. 사람에게 필요한 수분과 영양물질을 보충해주고 물질대 사를 촉진시켜주는 차는 정신적, 육체적피로를 풀어주고 유기체의 활동능력을 높여주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음료이다.

예로부터 《불로장수의 명약》 으로 불리우며 돈있는자들속에 서는 금으로까지 교환되였다는 차는 10만개의 잎을 따야 1kg 의 원료를 장만할 정도로 차나무 재배로부터 차잎생산과 가공에 많은 품이 든다고 한다. 더우기 차나무과에 속하는 사철푸른 작 은 키나무인 차나무는 기성관례 에 따르면 북위 36°선 이북지 역에서는 재배할수 없는것으로 되여있었다.

이런데로부터 우리 일군들과 인민들속에는 1980년대이 전까지만 하여도 차나무재배와 관련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빛나는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조선 식지붕을 떠이고 민족의 우수 한 건축양식을 자랑하며 웅장 하게 솟아올라 오랜 기간 우리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의 거점 주체적무대예술의 전당으로 그 이름 떨쳐온 평양대극장에 도 인민을 위해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다.

우리 나라에서 차를 자체로 생산하여 인민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를 풍족하게 마시도록 하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른 나라 에서 선물로 보내온 차나무모를 몸소 저택에 심고 재배시험도 하시였으며 수백그루를 농업과 학원에 보내주시면서 풍토순화 시켜 퍼치도록 할데 대한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다. 차나무모를 강령군의 양지바른 곳에 심도록 적지도 정해주시고 앞으로의 연 구사업방향에 대하여서도 하나 하나 밝혀주신것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차나무재배 와 관련하여 주신 교시는 주체 7 2 (1983) 년 한해동안에만도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농업과 학자들은 차나무모를 우리 나라 북반부지역의 최서남단에 자리잡 고있는 강령군에 정성담아 심고 연구사업에 착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차나무재배와 관련한 실태 를 보고받으시고 그 재배면적을 늘일수 있도록 연구사업을 심화 시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여러차례나 된다.

농업과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피 타게 사색하고 탐구하여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 맞게 령하 15℃이상에서가 아니라 령하 1 9℃에서도 겨울나이를 할수 있게 순화된 여러가지 차나무품 종들을 선발하는데 성공하

이처럼 남방에서 자라던 차나 무를 우리 나라에서 재배하기 위한 연구사업은 위대한 수령님 의 발기와 세심한 령도, 크나큰 은정속에 진행되였으며 그와 더 불어 차나무재배면적이 점차 늘 어나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조국 땅에 펼쳐주신 차나무재배의 새 력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더욱 활짝 꽃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직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도 사연깊은 차나무재배와 관련한 연구사업을 더욱 활성화해나가 도록 귀중한 조치도 취해주시고 차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에서 생산된 차를 《은정차》로 부르도록 뜻깊은 이름도 몸소 지어주시였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인민들의 차마시는 풍습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 식의 새로운 차문화를 창조 해나가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을 받들고 우리 농업과학자들은 차나무재배 번식과 차잎가공기술 등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욱 힘있게 내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차나무재배와 차잎생산정형을 여러차례 료해하시고 우리 인민 들에게 록차와 홍차를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획기적 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그 손길이래 서부의 강령지구와 동부 의 고성지구에는 은정차재배원 들이 새로 조직되고 훌륭히 꾸 려지게 되였으며 질좋은 차를 많 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벌어지게 되였다. 주체 98 (2009) 년 5월 은정차재배원에서 생산한 차를 몸소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차보다 더 좋다고, 차맛도 좋고 포장도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차를 보시 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 크나큰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사랑속에서 그해 수도의 거리에 는 은정차를 봉사해주는 매대가 생겨나 시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

100(2011)년 8월과 11월

에도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대로 차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봉사 할데 대한 간곡한 교시를 주시 였다. 차의 효능과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인민의 차마시 는 풍습, 우리 나라 차의 종류와 특징에 대하여, 우리의 은정차에 깃든 인민사랑의 숭고한 력사에 대하여, 색도 좋고 맛도 좋게 록 차와 홍차를 타는 방법, 은정차 재배원에서 차잎생산을 최대로 늘이며 여러가지 종류의 차를 만 들어 봉사할데 대하여 그리고 새 로 일떠서는 창전거리 봉사시설 구역을 비롯하여 평양시의 여러 곳에 차집을 내오고 은정차를 봉

사할데 대하여… 마디마디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해,마지막시기에 남기신 이 간곡한 유훈은 우리 식의 새로운 차문화를 창조하고 보급하 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인 지침으로 되였다.

하기에 은정차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을 그대로 안으시고 주체 1 0 1 (2 0 1 2)년 5월 완공을 앞둔 창전거리의 은정차집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차집에는 우리 인민들이 차를 마음껏 마시게 하려고 마음쓰신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다고 감 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그러시면 서 은정차집을 진달래홀처럼 되 게 식탁의자와 장식벽면의 색갈 을 잘 맞추어 더 잘 꾸리고 인 민들에 대한 봉사를 잘하는데서

가르쳐주시였다.

위

0

오

0

권

0

扫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력사에 있어

본적이 없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인민의

자 애 로 운

11000円円

만민이 우리

르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

과 해외동포들.

세계 진보적인

류의 다함없는

그리움과 흠모의

정이 위인칭송의

화원을 펼쳐놓

은 중앙식물원

국제친선식물관

선물식물온실을

선물식물온실

우리가 처음

은 3개 온실로

나뉘여있었다.

으로 들린 온실

찾았다.

에는 무늬풀, 곧은주초, 은띠천

세란을 비롯하여 각양각색의 희

귀한 식물들이 푸른 잎새를 한

그런가하면 변색꽃나무, 엽자

화, 노란꽃부상화 등에 꽃이 활

짝 피여나 향기를 풍기고있

해외동포들과 세계 진보적인

류의 뜨거운 지성이 담겨져있는

하나하나의 식물들을 주의깊게

껏 펼치고있었다.

었다.

얼마전 우리는

《 참 으 로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관심과 세심한 손길에 떠받들려 창전거 리의 은정차집은 현대적으로 일 떠서게 되였으며 그해 7월부터 봉사를 시작하였다.

지금 은정차집에서는 은정어 린 우리의 록차와 홍차는 물론 보리차, 메밀차, 강냉이수염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를 그 맛이 잘 살아나게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하고있다.

은정차집의 일군들과 봉사자 들은 차잎을 리용하는 록차새우 튀기. 참깨록차튀기와 같은 료리 들과 차에 곁들이는 음식들도 다 양하게 만들어 봉사하고있으며 새로운 종류의 맛좋은 차를 개발 하는 사업도 활발히 벌리고있다. 농업성의 적극적인 지도방조

밑에 여러가지 차원료를 확보하여 연풍과학자휴양소와 마식령스키 장을 비롯한 많은 봉사단위들에 보내주고있으며 이를 통하여 차 문화의 보급거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있다. 수십년전 수백그루로 이 땅에 뿌리내린 차나무는 오늘 수많이 늘어났다.

정녕 하나의 물방울에도 온 우주가 비끼듯이 대를 이어 더 해만 가는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인민사랑의 세계가 뜨겁게 비껴 있는 우리의 은정차이다.

그렇다. 우리 식의 차문화는 이렇게 꽃펴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헌신의 자욱과 더불어,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간 직된 한없는 그리움과 더불어 수령님들의 태양의 력사는 이 땅우에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본사기자 려명희

중 앙 식 불 원 국 제 친 선 식 불 관 불식불온실을 찾 아 서

경 애 하 는 돌아보던 우리는 어느 한 화분 김정은동지께서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는 다음과 같이 뽈스까의 어느 한 종합대학

> 올린 짧은잎천세란이였다. 온실에서 일하는 원예사 김인 옥동무가 이야기하기를 그 식물 원은 백수십년의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으며 뽈스까의 식물원 들중에서 식물종수가 가장 많은 식물원이라는것이였다. 그 식물원에서는 어버이수령님

식물원에서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의 정을 안고 짧은잎천세란뿐아 니라 여러 계기때마다 정성껏 마련한 희귀한 식물들을 선물로 올리였는데 세모잎고무나무, 삼 색깨풀나무, 커피나무를 비롯하 여 그 가지수는 참으로 많다고

해외동포들파 세계인민들이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실 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안고 올린 선물 식물은 450여종에 1 400 여그루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들 으며 우리는 다음 온실들에로 발걸음을 옮겼다.

온 세계가 흠모하여 마지 않 는 절세위인에 대한 절절한 그 리움의 정을 더해주는 두번째 온실에 이어 우리가 이른 곳은 갖가지 식물들과 함께 철쭉과 영산홍 등 여러가지 색갈의 꽃 들이 만발한 세번째 온실이였 다. 그윽한 꽃향기가 온실안을 가득 채우고있었다.

황홀한 꽃의 세계에서 눈길을 뗴지 못하고있는데 원예사 김준 영동무는 호랑가시나무에서 풍기는 향기도 독특하다고 하면 서 우리를 그 나무쪽으로 이끌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보내여 온 이 나무는 작은 꽃이 여러개 모 여 핀 식물이였는데 다가갈수록 그 향기는 더욱 짙게 풍겨왔다.

김준영동무는 온실에 있는 풀 한포기, 꽃 한송이, 나무 한그루 마다에 어버이수령님을 따르는 해외동포들과 세계인민들의 뜨 겁고도 열렬한 지성이 깃들어있 어 이렇듯 아름다운 향기를 풍 기는것 아니겠는가고 격정에 넘 쳐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정녕 온실들을 돌아볼수록 원예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록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세계가 공인하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라는 생각에 그리고 이런 위대한분을 영원한 태양 으로 모신 끝없는 영광과 자부 심으로 가슴부풀어오름을 금할 수 없었다.

절세위인께로 달리는 해외동 포들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뜨거 운 마음들에 받들려 세계의 진귀 한 식물들이 오늘도 줄기를 한 껏 뻗치며 진한 향기를 끌없이 풍기는 선물식물온실,

진정 여기에 차넘치는 꽃향기 는 단순한 자연의 꽃향기가 아니 였다. 세월이 흐를수록 변함없고 더욱 뜨거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만민의 열화같은 경모와 칭송의 정속에 분출하는 이 세상 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였다.

온실을 나서며 우리는 다시금 확신했다.

어버이수령님은 인류의 마음 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 하실것이라는 력사의 진리를. 그와 더불어 4월의 꽃향기는 세월의 끝까지 이 땅우에, 온 누리에 영원히 차넘칠것이라는 것을.

조 향 미

성적이 부쩍 높아

지고 재능도 아름답

게 꽃펴나 7.15

최우등상,우리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

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들이 분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온갖 조건 이 마련되여있습니다. »

이 땅 그 어데 가나 인민에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한평생 을 노래하는 수령흠모, 영생축원 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 있는 속에 평양대극장에서도 제 4 차 4 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의 뜻깊은 공연무대가 성대히 펼쳐지게 된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벌써 승리할 조국의 래일을 내다 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최고사령부작전대우에서 전후 복구건설총계획도를 보아주시 면서 평양의 중심에 조선식극장을

구상을 펼치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꾸려진 대극장안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몸소 정면 훌륭히 건설할데 대한 원대한 과 좌우좌석에도 앉아보시고 무 대와 관람석사이의 거리관계,

전후에는 그 위치까지 몸소 음향조건도 헤아리시면서 대극 일 밀 의 문화전당 া ******

잡아주시고 설계로부터 건설 방향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여러차 레에 걸쳐 건설현장을 찾으시여 서는 대극장을 인민의 문화전당 으로 잘 건설하도록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렁님이시였다. 주체49 (1960) 년 5월 30일 또다시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는 극장건설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짓 는 이 대극장은 인민들을 위한 예술의 전당인것만큼 인민들의 요구대로, 인민들에게 편리하게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물로 잘 지어야 한다고 거듭 교시하 장을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편리하게 최상의 수준에서 꾸릴 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 였다.

《평양대극장》이라고 몸소 이름도 지어주시고 준공테프까지 끊어주신 어버이수령님,

절세위인의 이렇듯 뜨거운 인민 사랑에 의하여 1960년대를 대표하는 로동당시대의 기념 비적건축물로 일떠선 평양대 극장에서는 조선로동당 제4 차대회를 비롯한 수많은 중요 정치행사들이 진행되였으며 《피바다》 식혁명가극이 창조 된 가극혁명의 발원지로, 많은 문학예술작품들이 창작공연된

주체적무대예술의 전당으로 그 이름을 빛내일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 의 손길아래 수도의 한복판에

우뚝 솟아 인민의 문화전당으로 이름떨쳐온 평양대극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현대 적미감과 건축학적요구, 력사주의 적원칙에 맞게 더욱 훌륭히 개건 되여 수도시민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이 선군시대 사회주의문 화의 창조자, 향유자로서의 보 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는데 적극 기여 하고있다.

경사로운 4월의 이 봄날 평양 대극장의 화려한 무대에서 높이 울려퍼질 태양송가, 영생축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들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한평생을 더욱 감명 깊게 되새길것이며 그 사랑.그 업적을 길이 전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이 땅우 에 기어이 사회주의만복이 꽃펴 나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울 신념 과 의지를 더욱 굳게 다져나갈것 이다.

본사기자 전철호

지금으로부터 5 0 여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혀지지도의 자욱을 붉은기 선죽고급중학교에도 절세위인에 대한 그리움의 정이 뜨겁게 넘쳐흐르고있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당의 령도따라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투쟁하고있다. 》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끊임 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분계 연선도시에 있는 이곳 학교에도 위대한 헌신의 자욱자욱을 새겨 가신 어버이수령님의 체취가 뜨겁게 안겨오는듯 하여 아담하 게 꾸려진 건물들만 보아도 마 음이 마냥 달아오르는 선죽고급 중학교이다.

력사의 그날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학생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 낼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설레이는 그리움으로 개성시 3 중영예의 붉은기 선죽고급중학교에서

남기신 개성시 3중영예의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더불어 학교가 수놓아온 발전의 력사는 얼마나 자랑스러 운것이가.

> 위대한 수령님의 표창장을 수여받고 3중영예의 붉은기를 쟁취한 단위, 위대한 수령님들 의 뜨거운 은정이 어린 수많은 선물들,학교가 배출한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 김일성소년영예상수상자 김정일소년영예상수상자들과 공화국영웅, 로력영웅들, 인민 예술가를 비롯한 명예칭호소유

더욱 눈길을 끄는것은 영광의 학교에서 지난 기간 7.15최 우등상, 우리 교실문학상수상자 들도 수많이 배출된것이다. 그 비결에 대해 교장 리선옥

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더욱 활짝 꽃피우기 위해 애썼 을뿐입니다.이제 알게 되겠지 만 우리 학교교원들이 수업에 리용하는 교편물이 적지 않습 니다.》

길지 않은 말이지만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학교에서 훌륭한 인재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것을 생의 좌 우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사색 과 탐구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 켜온 이곳 교육자들의 불같은 열정이 비껴있다.

교원 리순정동무는 혁명력사 과목에 대한 매 시간별수업내용 과 관련한 다매체편집물을 다양 하게 준비하였으며 교원 조영오 동무는 물리과목의 특성에 맞게 수업내용과 가장 가까운 사물현 상들과의 련관속에서 모든 수업 준비를 여러가지 형식으로 완성 하는것과 함께 수많은 교편물들 도 마련하였다.

이밖에도 많은 교원들이 특색 있는 다매체편집물과 직판물들 을 갖추어놓고 수업을 높은 질 적수준에서 진행하고있다. 이 과정에 학생들속에서 학업

교실문학상수상자대렬이 끊임 없이 늘어나게 되였다.

교원들 누구나가 한결같이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학교의 교육환경 과 조건이 높은 수준으로 개 선되고있는 속에서 교육사업 의 성과여부는 자기들에게 달러있다고 절절하게 이야기 하다.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끓이는 이들 은 당의 의도대로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 한 완강한 실천으로 뜻깊은 4월의 하루하루를 더욱 뜨겁게 이어가고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그날의 유훈을 끝없이 빛내여갈 이곳 교육자들의 드 높은 열의속에 펼쳐질 학교의 래일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것 인가.

지 혁 철

한

대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정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1일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이 경모의

대표단성원들은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

과 로고를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 를 드리였다.

공식방문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디아를 외 무 상 일 국

인디아공화국을 공식방문 일행이 11일 평양을 출발하 부상과 아제이 꾸마르 샤르마 하기 위해 리수용 조선민주 였다. 주조 인디아공화국 특명전권 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비행장에서 리길성 외무성 대사가 전송하였다. 래

본조선인대표단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 대표단이 11일 평양에 도착

도 착

비행장에서 김영대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대표단단장인 남승우 총련중 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 맞이

김 일 성 - 김 정 일 주 의 연 구 대 표 단 도 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는 일본 김일성-하야시 야찌요 시즈오 김정일주의연구대표 까주체사상연구회 단이 11일 비행기로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 평양에 도착하였다.

까 자 흐 스 딴 공 화 국 외 무 성 대 표 단 귀 국

스딴공화국 외무성 꼬브 순회대사를 단 대표단이 11일 비행 장으로 하는 까자흐 기로 귀국하였다.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 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 LICE »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 고 평안북도출판물판리국에서 도서를 통한 위대성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관리국일 군들은 모든 시, 군출판물보급 소들에서 도서를 통한 위대성선 저을 활발히 벌려 당원들과 근 로자들속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도록

도 서 를 한 위대성선 안 북 도 출 판 물 관 리

하고있다. 도서를 통한 위대성선전을 잘 하고있는 의주군출판물보급소 출판물보급원들로 보여주기사 업을 진행하고 그들의 모범을

적극 일반화하고있다.

보여주기사업이 있은 후 모든 시, 군출판물보급소들에서는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나가 위대성도서해설선전사업을 적극 벌려 령도업적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 앞장서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깊이 체득시키고있다.

신의주시출판물보급소 소장 과 출판물보급원들은 락원기계 련합기업소와 신의주신발공장,

신의주방직공장을 비롯한 200 여개 단위에 나가 많은 근로자 들을 대상으로 위대성도서해설 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 당원들 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이곳 출판물보급소 락원분책방 출판물보급원 정란동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세워주신 락원의 8명 당원들속에 들어가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보여 주는 도서에 대한 해설선전사업 을 실감있게 진행하여 그들이 장군님의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 하고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 하게 받들어나가도록 떠밀어주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하면서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

국 에 서 고있다.

전

의주군출판물보급소 출판물 보급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뜨겁게 새겨 져있는 의주군 홍남협동농장에 나가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위대성도서해설선전을 활발히 벌리는것과 함께 경제선동활동 을 적극 벌려 그들이 당면한 영 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고있다.

정주시출판물보급소 출판물 보급원들은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시급기판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우리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인민적 풍모를 보여주는 도서들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려 당 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 의 업적을 깊이 심어주고있다.

이밖에도 향산군과 구성시, 운산군과 삭주군출판물보급소를 비롯한 다른 시, 군출판물보급 소의 출판물보급원들은 1 500여회에 걸쳐 연 2만 7 000여명을 대상으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도서를 통한 해설선전활동을 활발히 벌

리고있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 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체득하고 오늘의 보람찬 대고조 전투에서 위훈을 창조하도록 적극 뗘밀어주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음 절 하 즈 여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의 영화감상회 중국에서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항일혁명 투쟁연고자가족들의 영화감상 회가 9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였다.

재중항일혁명투사, 중국항일 혁명렬사, 중국항일혁명투쟁 연고자가족들 그리고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먼 저 참 가 자 들 은

᠒

태양절에 즈음하여 윤길상

비행장에서 김진국 해외

해

동

堊

표하였다. 이어 우리 나라 영화 《마식령스키장》을 감상하였다.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인 풍중운의 딸 풍억라, 주보중의

丑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꽃바

구니를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 한다고 강조하였다. 딸 주위, 상월선생의 며느리 반효민은 태양절이 다가올수록

단

영화감상후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에 사진문헌들을 돌아보았다. 들 도 착

재카나다조선인련합회대표단

도육아원, 애육원건설 힘있게 추진 합경북도에서 도육아원, 애육 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 원건설이 힘있게 진척되고있다.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미래 사랑을 꽃피우는데 이바지할 임념으로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 자들은 드세찬 공격전을 벌려 기 초굴착 및 콩크리트치기를 끝내고 1층, 2층 벽체축조를 본격적으로 내밀고있다. 도에서는 5월말까지 건축공사를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자재보장을 선행시키면서

공사속도를 높여나가고있다. 육아원의 기본호동건설을 맡 은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청진시 청암구역의 건설자들은 자력갱생 의 혁명정신으로 애로와 난판을 뚫고 돌격전을 벌려 기초콩크리 트치기와 1층 벽체축조작업을 남먼저 끝냈다.

보조건물공사를 맡은 청진금속 건설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합 리적인 공법으로 2층 벽체축조를 질적으로 끝내고 층막치기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애육원건설을 맡은 김책제철 재뉴질랜드동포협의회대표단 | 현합기업소 건설자들은 아이들

가 밝아진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불리한 조건에서도 작업속도를 부단히 높여 짧은 기간에 기본 호동기초콩크리트 및 층막치기 를 해제꼈다.

구획성토작업과 지대정리도 동시에 밀고나가고있다.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 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들과 시 안의 기관, 공장의 일군들과 근 로자들은 적극 떨쳐나 1만여m³ 의 성토작업과 1만여m²의 지대 정리작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며 수종이 좋은 수천그루의 나무를 정성껏 심고있다.

청진강재공장에서는 내부예비 를 탐구동원하여 계획된 철강재 를 생산보장하였으며 도림업관리 국, 고무산세멘트공장에서는 증 산경쟁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수백m³의 통나무와 1 000여印 세멘트를 생산하여 건설공사가 힘있게 추진되게 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게 재

죄행과 군국화에로 떠민 미국의

지난 3월 대만의 한 싸이트는 《아 시아태평양지역이 꾸바미싸일위기와 같은 시기를 맞을수 있는가》라는 제 목으로 글을 실었다.

글에서는 일본의 우주기술개발로 꾸 바미싸일위기의 아시아태평양판이 성 숙되여가고있다는 대만군사전문가의 말을 실었다.

전문가는 일본정부가 올해초에 승인 한 10개년우주정책기본계획이 매우 위협적인것으로서 일본이 저들의 우주 정책을 《북조선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고 하지만 10개년우주정 책기본계획에 다음세대 고체연료로케 트의 개발이 들어간것은 대륙간탄도미 싸일계획에 따른것이라고 까밝혔다.

일본이 대륙간탄도미싸일무력을 창 설하려 할 경우 동북아시아에서의 긴 장은 더욱 격화될것이며 그것은 19 6 2년의 꾸바미싸일위기때처럼 그렇 게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것이라는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의 견해는 결코 그릇된것이 아니 다. 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가 실지로 그 렇게 되여가고있다.

지난해 여러 나라 고위급인물들이 동북아시아지역정세가 제 1 차 세계 대전전야의 정세와 류사하다는 론거 들을 펼쳤었다. 그에 이어 이번에 대 만의 군사전문가가 동북아시아지역 의 정세가 꾸바미싸일위기가 조성되 였던 시기와 비슷하다고 주장하고있 는것은 이 지역에서 그만큼 다치면 터질듯 한 정세가 팽팽하게 돌아가 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2 0세기력사에서 가장 첨예한 상황 에로 정세가 치달았던 1910년대의 제 1 차 세계대전전야와 1960년대 에 있었던 꾸바미싸일위기와 같은 사 태가 2010년대에 와서 동북아시아 에서 다시 조성되고있는것은 매우 심 상치 않은 사태발전이다.

일본의 대륙간탄도미싸일무력창설이 가지는 위험성과 범죄성은 첨예한 군 비경쟁과 대립, 마찰이 극도에 이르렀 다가 종당에는 제 1 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사변을 가져온 당시의 정세를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제 1 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 렬 강들사이의 무력증강경쟁은 그야말로 치렬하였다. 강철바퀴들이 서로 부딪 치며 첨예한 대결전을 벌리던 그때에 그 어느 나라도 하늘끝을 모르고 치달

로 떨굴수 없었다. 현시기 동북아시아지역정세는 어뗘 한가.

아오르는 무력증강의 그라프를 곡선으

중국, 로씨야, 미국, 일본과 같이 대 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군비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는 동북아시아지역에 서 새 세계대전이 일어날수 있다는 주 장들이 튀여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 연한것이 아니다. 이 지역은 지금 세 계적으로 발전되였다고 하는 모든 핵 무력과 첨단무기들, 군사장비들의 전 시장, 그 활용시험장, 서로가 서로를 누르고 우세를 차지하기 위한 군사도 박장으로 되고있다.이 모든 행위의 뒤에는 미국이 서있다.

전문가들은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 과 미국의 군사비지출은 전세계의 60%계선에로 육박하며 그중 미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고 하 면서 이 지역이 새 세계대전발발의 열 풍속에 들어가있다고 우려하고있다.

이 지역에서 일단 전쟁이 터지면 그 것은 이전과는 대비할수도 없는 전인류 적범위의 파멸적후파를 몰아오는 핵전 쟁으로 되게 된다.

이 모든 사태는 미국이 몰아왔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동북아시아지 역에서 제 2의 조선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남조선에 수많은 핵무기를 끌어 들이고 패전국인 일본을 재생재무장시 켜 오늘에 와서는 일본반동들이 어벌 이 커질대로 커져 대륙간탄도미싸일무 력을 창설하는데로까지 나가도록 조장 시켜왔다.

교전권과 참전권을 상실한 일본이 패망 70년이 되는 올해에 과거청산 에 대한 국가적조치는 취하지 않고 무 력증강에 더욱더 광분하고있는것은 비 정상적이며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과거 에 저지른 반인륜적범죄를 릉가하는

죄악을 저지르기 위한 토대를 닦으려 는 용납 못할 망동이다.

일본을 군국화에로 떠민 력사적기초 는 미국이 조성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후 일본을 강점한 미국의 대일정책의 기본은 어제날의 적국을 무장해제하고 다시는 미국에 도전할수 없는 정치군사적 및 경제적 속국으로 만드는것이였다.

다시말하여 일본의 비무장화와 경제 의 비군사화, 일본사회의 《민주화》 라는 《정책》을 실시하여 《연약한 일 본》. 《미국을 다시 위협할수 없는 일 본》으로 만들어 미국의 철저한 예속 하에 둠으로써 저들의 세계전략수행에 유리하게 리용하자는것이였다.

그러나 미제의 이러한 대일정책은 중국에서의 정세변화와 함께 전환되게 되였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 는 당시 장개석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허물어진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대전직후에 중국의 형편을 보고온 미국의 한 판리는 장개석의 생존가치 가 거의 없어졌다는 의미에서 《우리 가 〈경마에서〉 질 말에 운명을 걸고있 는것이 아닐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한 맥아더의 대답을 미국의 력사가이며 맥아더사령부의 이전 과장 이였던 데이비드 콘데는 《미국에 다 른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여 〈다른 말〉이 있다면 그것은 어 제까지 아시아의 전지역을 미쳐날뛰던 사나운 말 즉 일본》이며 그러한 말은 반드시 《강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형상적으로 묘사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일본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장개석을 대신할 중요한 반 공기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있었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일본을 중국을 대신할 《강한 말》 로 키우기 위한 침략계획은 《트루맨 주의》 선포를 계기로 하여 본격적인 실 천단계에 들어섰다. 말하자면 일본경제 의 군사화를 추진시키는것이였다.

이것은 일본독점자본에 재생산조건 을 마련하여줌으로써 일본을 미국의

,44444444

아시아지배전략의 틀안에 종속시키고 어모았다. 동북아시아의 병기창으로 전환시키기

위한것이였다.

처리하는 길에 들어섰다.

태공하자는것이였다.

할데 대한 포츠담선언의 리행을 모두

일본을 비군사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배상문제는 응당 련

합국들의 총의에 의하여 결정되여야

하였다. 그런데 미제는 일본의 배상

문제를 현합국들의 동의와 협의도 없

이 처리하였다. 미제는 일본의 전쟁

배상금액을 계단식으로 줄이였다. 또

한 배상에 충당하기로 되였던 전체

군수공장들과 비행기제작소 및 기타

군수설비를 가진 공장들의 반출을 정

지하였다. 결국 1940년대말에 이

르러 일본경제의 비군사화는 최종적으

로 정지되고 해체하기로 되였던 독점체

325개 회사들가운데서 19개 회사

미쯔이, 미쯔비시, 스미토모, 야스다

의 4대재벌은 본사주권을 분산시키

는데 그치였다. 이렇게 되여 일본에서

의 재벌해체는 중단되고 일본독점자

본에 대한 형식적인 제한조치마저 련

이어 취소되였다. 일본을 비군사화한

다던 형식적인 구호마저 집어던진 미

제의 이 병기창정책은 일본독점재벌

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활개를 치면서 경제를 군사화

미제가 취한 이 모든 조치들은 전패

국 일본이 전후 혼란된 경제적위기를

극복하고 점차 군사대국화에로 질주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구축할수

미제의 조선전쟁도발은 일본경제를

《고도성장》에로 떠미는데서 결정적

당시 일본독점자본가들은 조선전쟁

시기의 호경기를 《가미가제》경기라

고 환성을 올리면서 막대한 리윤을 긁

있는 절호의 기회로 되였다.

할수 있게 하였다.

작용을 하였다.

만이 약간의 피해를 입었다.

일본의 대독점자본가들은 조선전쟁 이 일본독점자본의 재생에 준 커다란 영향에 대하여 《조선전쟁은 일본경 미국은 이러한 대일정책에 따라 《재검토》라는 구실밑에 일본의 전쟁 제에 있어서 그야말로 귀신의 바람(가 미가제)이였다.》,《조선전쟁은…가 배상문제와 재벌해체문제를 부당하게 물에 내리는 지혜로운 비와 같았 미국의 목적은 일본경제를 비군사화 다. 》라고 실토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이 오늘 군국주의에 로 질주할수 있게 된것은 바로 미국이 력사적으로 그 기초를 닦아준데 있다. 전패국이 아니라 재침의 길에 뛰여들

려는 군국화된 일본, 바로 이것이 패망 7 0년이 되는 올해의 일본의 모습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패전후 다시는 일 본이 군국화되지 못하도록 할데 대한

국제적요구를 무시하고 저들의 지배전 략을 위해 교활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일본의 군국화를 조장시켜온 미국에 오늘날에 와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중시전략에 의해 걸머지게 되는 무거 운 군사비부담을 일본에 뗘넘기며 세 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일본을 군국화의 길로 더욱 떠미는 위험한 범죄적망동이다.

미국과 일본반동들은 력사의 흐름을 되돌려보려고 발악하지만 그것은 헛된 망상이다.

과거청산이 없는 일본의 앞날은 없 다. 일본반동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재침의 길에 뛰여들려고 하다가는 지 난 시기와는 대비도 할수 없는 비참 한 처지에 빠질수 있다는것을 명심해 야 한다.

시대는 변하고 력사는 멀리 전진하 였다. 지난날 옛 제국시대의 꿈을 되살 려보겠다고 날뛰는 일본반동들의 책동 은 절대로 실현될수 없다.

일본반동들은 어리석은 야망을 버 리고 패망 70년이 되는 올해에 죄 많은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대용단 을 내려야 한다.

여기에 일본의 앞날이 있다. 일본에 있어서 군국화는 제2의 패망을 불러오는 길이다.

수 리 아 신 분 글

수리아신문 《알 바아스》 3월 29일부가 《천만부당한 대조선〈인권〉공세》 라는 제목 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다 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지금 《인권》을 구실로 조 大물 으로 삼고있기때문이다.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 한 히스테리적인 공세를 벌 리고있다. 하다면 조선의 인 권상황은 과연 어떠한가.

조선은 학교갈 나이에 이 른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심심산골이든 외진 섬이든 학교를 세워 배움의 글소리 가 그 어디에서나 울리게 하 고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는 나라이다.

사람들은 치료비없이 건 강을 담보받고있으며 병원 을 비롯한 의료시설들이 정 연하게 전개되고 의사담당 구역제가 실시되여 의사가 🗡 환자를 찾아가 치료해주는 가장 우월한 완전하고도 전 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 디고이다 민기 어려운 사실 자 이번에는 《인권문제》를 이지만 조선은 그 누구나 돈 한푼 내지 않고 국가가 지어 준 집을 배정받아 생활하는 ▮ 보려고 발악하고있다. 나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 금이 없는 나라, 실업자가 없는 나라, 로동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희망과 재 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권 리를 누리고있으며 국가에 서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주고있는

나라이다. 조선은 사회의 모든 성원 __ 기기 보는 정천 들이 차별없이 정치적자유와 **서** 권리를 보장받고있는 나라이 다. 이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들중에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 과 녀성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한가지 사실만을 통해서도 실증되고있다.

단언하건대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에서는 사회적인간의 모든 권리를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수준에서 전면적으로 보장 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

해주고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인민대중중심의 학설인 주체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 ► 《인권》 공세는 실로 황당

신문은 카나다 법조계인사 의 조선방문인상기를 소개하 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 □국은 추종세력들을 내세 의 유엔총회 제69차회의 3위 원회에서 조선을 반대하는 《인권결의》를 강압통과시켰

-으며 대조선 《인권》 공세를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명백히 말하건대 이것은 조 선에 대한 침략전쟁을 노린 모 략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정치 적고립과 경제적봉쇄, 군사적위 협과 같은 형형색색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추구하여왔다. 무력간섭의 명분으로 내걸어

원래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 력침공이나 정권전복을 시도할 전심하기가 경면진 학교 기교로 대마다 《인권용호》를 구실로 내대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수법 이다. 만전쟁과 발칸전쟁, 아프 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 ▶ 들이 그 뚜렷한 실례이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인 권》소동은 일시적인 전술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이며 《인권문제》를 구실로 공화 국을 침략하고 압살하려는것 이 바로 미국의 목적이다.

세계의 량심은 천만부당한 미 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소동을 단호히 배격규 타하다. 【조선중앙통신】

ŌH

조선의 사회주의는 더욱 굳건해질것이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뻬루신문 《악씨온 나씨오날리스따》 3월 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신문사 사장 후안 에스삐노싸 갈라가 쓴 글 《세계에서 유일한 사회주의나 라-조선》을 특집하였다.

신문은 필자의 다음과 같은

글을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주를 밝히는 태양과도 같은 세계혁명의 등대이다.조선은 자주적인 사회주의나라이다. 조 선의 군대와 인민은 자주권수호 정신이 강한 불패의 군대.영웅 적인 인민이다. 그들은 자체의 힘으로 핵억제력을 갖추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고있다.

전체 조선인민은 자주권을 견 결히 수호할 의지에 넘쳐있다.

앞으로만 나아가고있다. 조선을 왜 세계의 유일한 사

력사를 돌이켜보면 이전 쏘련 무너지지 않을수 있었는가?

조선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의 사태로 모든것이 붕괴되고 사회 주의는 좌절되였다. 하다면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떻게

수령, 탁월한 사상리론가, 견결한 투사,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각하께서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조선식사회주의제도 수립하시였으며 정치, 경제문 야에서의 자주성을 최고의 높이에서 견지하시였다. 그이의 로선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의 사회주의는 무너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더욱 굳건해질것이다. 조선은 사회주의제도의 발전 하여 조선의 사회주의는 오직 을 위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세

그는 우리는 언제나 함께 력

사적진실을 고수할것이며 가장

무서운 악이였던 파시즘으로부

터 우리 조국과 유럽, 전세계를

구원한 사람들에 대한 커다란

감사의 마음을 간직할것이라고

계의 유일한 사회주의나라로 되 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비록 크지 않지만 자주권과 회주의나라라고 하는가? 존엄, 영예를 굳건히 고수하고 🥻 있는 위대한 나라이다. 그 누구 도 조선을 무너뜨릴수 없었으며

> 만된 조선인민의 단결된 힘이 🕏 있기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조국수호정신으로 충

위대한 수령 김일성각하께 영원한 영광을 드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역

영원한 영광을 드린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 만세! 영웅적조선인민 만세!

조선인민군 만세! 신문은 김일성광장에서 진행 된 열병식장면사진을 함께 편집 하였다.

폭 풍 피 해

4일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 폭풍으로 30여명이 목

숨을 잃고 수백명이 부상당하

였으며 많은 살림집들이 파괴

되였다. 또한 수백그루의 나무

가 뿌리채 뽑히워 넘어지고 교

한편 아랍추장국련방에서도

2일 모래폭풍이 휩쓸어 피해를

입었다. 모래폭풍으로 두바이

와 아부 다비에서 13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비행

기운행이 취소되는 등 혼란이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들이

통이 마비되였다.

조성되였다.

취해지고있다.

방글라데슈의 여러 지역에서

더우기 사람들의 격분을 자 아낸것은 살인을 감행한 백 인경찰의 뻔뻔스럽고도 날 강도적인 허위진술이였다.

그는 진술과정에 흑인주 민이 자기에게서 전기충격 무기를 빼앗으려 하였기때 문에 사격하였다고 자기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였다.

흑백을 전도하는 그의 진술은 사건현장에서 한

가 집권하고있는 한 팔레스티나

국가란 있을수 없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그는 만일 자기가

총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는 경우

《팔레스티나국가는 창건되지

네타냐후는 이미 2009년

에 한 연설에서 일정한 조건하

에서 팔레스티나국가창건을 인

정한다는 립장을 밝힌바 있다.

그는 팔레스티나인들이 이스

라엘을 《유태인들의 국가》로

인정하고 앞으로 수립될 팔레

스티나국가가 군사화되지 않는

다는것을 담보하는 경우 이스

라엘은 《유태국가와 공존하는

비군사화된 팔레스티나국가를

는 궤변으로서 팔레스티나인들

이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것

알려진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미국의 비호조장밑에 핵무기를

보유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가 비군사화되는 경

우에만 국가로 인정하겠다는것

은 그야말로 저들은 총칼을 차

고 다른 사람은 맨주먹으로 있

못할것이다.》라고 뇌까렸다.

지난 3월 이

스라엘수상 네

타냐후가 자기

행 주민이 손전화기로 찍은 동 다 죄인인가.》.《얼마나 지 는 격노한 군중들의 반인종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인 권유린국인 미국에서 극도의 인종차별, 인간증오사상이 사 회전반을 지배하고있다는것은 이미 세상에 공인된 사실이다.

해

앞으로도 그럴것이다.그것은 ₹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들어 와서도 미국에서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살해사건이 끊기지 않고있어 국제사회의 심각한 론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4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노스챨스턴시에서 백인경 찰이 50대의 흑인주민을 총으 로 쏘아죽이는 귀축같은 만행 을 또 감행하였다.

이날 백인경찰은 교통단속과 정에 월터 스코트라고 하는 무 방비상태의 흑인주민을 짐승사 냥하듯 무참히 살해하였다.

영상자료를 공개하는 바람에 전부 거짓말이였다는것이 폭

동영상자료에 의하면 백인경 찰이 5m정도의 거리에서 달아 나는 흑인을 향해 8발의 총탄

으려 한것처럼 위장하기

흑인사냥을 하나의 쾌락으로 여기는 백인경찰들의 야수성과 파렴치성이 다시한번 적라라하 게 드러났다.

런 날강도가 어디 있는가.

갚음에 불과하다.

소리를 높이고있다.

조하였다.

구를 받아들이겠는가.

이번에 그가 자기가 집권하

고있는 기간에 팔레스티나국

가가 절대로 창건되지 못할것

이라는 망발을 줴친것은 팔레

스티나인들이 저들의 요구를

받아물지 않고있는데 대한 앙

누가 그런 얼토당토않은 요

팔레스티나는 이스라엘의 부

팔레스티나대통령은 네타냐

후의 발언을 규탄하고 이것은

이스라엘당국에 분쟁문제를 정

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는것을 보여준다고

까밝히였다. 그러면서 동부꾸

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

를 창건하려는 팔레스티나정부

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

한편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

행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이

스라엘을 고립시킬것을 국제공

주의정권의 강점정책, 인종주의

정책은 중동평화과정을 파괴하

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고 주

동체에 호소하였다.

당한 요구조건과 유태복고주의

정책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

났다고 또 이런 만행이 감행되 는가.》라고 하면서 울분을 터 뜨렸다.

그들은 시청건물앞에 밀려가 《미국에는 정의도 없고 평화 도 없다.》고 웨치면서 백인경 찰의 불법무도한 살인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주민들의 울분이 대중적인 폭동으로 번져질것이 두려워난 현지 수사당국은 스코트를 살 로 격노한 흑인들의 감정을 눅 잦히려고 분주탕을 피웠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해 퍼구슨시를 비롯하여 미 국의 여러 도시들에서 꼬리 를 물고 발생한 백인경찰에

주의시위가 전국으로 급속히 파급되면서 인종주의에 쩌들 대로 쩌든 미국사회를 밑뿌 리채 뒤흔들었다.

이것은 《만민평등》, 《만 민복지》의 허울좋은 간판밑에 자기의 권력기반을 유지해오던 미국지배층에게 심대한 타격으 평하고있다. 로 되였다.

이 나라의 🥻 CNN방 송 은 《이번 사건 이 퍼구슨사 태처럼 백인 과 흑인사이 의 갈등을 폭

여론들은 이번 흑인살인사 건이 뿌리깊은 사회적모순으 로 몸살을 앓고있는 미국사회 의 병집을 또다시 쑤셔놓았다 고 하면서 이것이 인권유린의

> 왕초 미국의 종말을 재촉하는 또 하나의 신호로 될것이라고





력사적진실을 고수해나갈 립장 표명 가를 잘 알고있다고 말하였다.

로씨야국가회의 의장 쎄르게 이 나리슈낀이 최근 기자회견에 서 력사적진실을 고수해나갈 립 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로씨야 와 독립국가협동체의 모든 성원 국 인민들은 위대한 조국전쟁승 리 70돐이 가지는 의의와 그 승리가 어떤 대가로 이룩되었는 강조하였다.

제재를 전면철회할것을 요구

이란핵수석협상자 아빠스 아라그치가 1일 텔레비죤방 송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 를 반대하는 제재를 전면철 회할것을 미국과 서방에 요

구하였다.

부문에 대한 제재를 중지하는 것이 핵합의의 가장 중요한 기 초로 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대이란제재가 완전히 철회되지

그는 이란의 금융,원유 등 조하였다.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사회

않는 한 핵회담에서 그 어떤 합

의도 이룩될수 없다고 그는 강

부정부패행위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 서 부정부패행위가 날로 우심 해지고있다.얼마전에 발표된 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 면 이 나라들의 국영 및 사영단 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저지 른 부정부패행위건수가 5년동 안에 등록된 건수의 절반을 릉

가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바니아에서도 최근 한 달동안에 전국적으로 감행된 부

정부패행위가 공식 등록된것만 도 4 256건에 달하였다. 3월 30일 이 나라 정부가 밝

혔다. 각 종 범 죄 뛰르끼예의 트라브존주에서 최근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여 사 회적으로 불안과 공포가 조성되 고있다.

정체불명의 무장범죄자들이 축구선수들이 탄 뻐스에 마구 사격을 가하여 부상자가 발생하

파

탄

110

였으며 범죄자들은 체포되였다 고 한다.

한편 그리스의 아테네교외에 있는 한 학교에서 2일 22살 난 녀학생이 마구 칼부림을 하여 3명의 학생에게 부상을 입혀 사

이에 앞서 1일 카나다의 방쿠 버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마약제조를 일삼던 범죄그루빠 들이 적발되여 20여kg의 각종 마약이 압수되였다.

형돌림감기비루스에 감염되였으며 그 중 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조류독감 전파 네데를란드에서 조류독감이 퍼져 피 해를 입고있다. 3일 이 나라 정부는 남 부지역의 한 가금목장에서 조류독감비 루스가 검출되였다고 밝혔다. 이와 판

에 들어와 현재까지 약 130명이 HINI

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수립하기 위한 미래의 평화협 정에 조인하게 될것》이라고 밝혔었다. 그의 이 망발은 저들은 핵보 돌 림 감 기 피 해 유국으로 되고 팔레스티나는 요르단에서 돌림감기가 퍼져 피해를 뿔을 구부린 양이 되여야 한다 입고있다. 5일 이 나라 보건성은 올해

이였다.

련하여 1만 2 000마리의 닭들을 도살 하는 등 긴급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을 미친듯이 쏘아댔다. 또한 흑인이 총에 맞아 잔디 밭에 코를 박고 쓰러지자 그에

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고 마치 도 그가 전기충격무기를 빼앗 그것을 시체옆에 가져다놓았다 고 한다.



에 대한 지지를 보내줄것을 호 소하였다. 국제무대에서도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

고있다.

라엘을 정치경제적으로 고립시

키며 팔레스티나독립국가창건

중동평화과정담당 유엔특별 조정관은 지난 3월 퇴임을 앞 두고 유엔안보리사회에 마지막 보고를 하면서 네타냐후가 팔레 스티나국가수립을 허용하지 않 을 자세를 표시한데 대해 우려 를 표시하였다. 또한 그는 《이 스라엘이 점령지에서의 정착촌 활동을 동결하는것과 같은 조치 를 취하지 않는 한 팔레스티나 측과의 신뢰관계는 회복되지 않 읔것이다.》라고 이스라엘을

엄하게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더이상 분 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평화 의 새로운 틀거리를 결정하는 데서 유엔안보리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 기하였다.

지어 상전인 미국까지도 팔 레스티나국가수립에 반대의사 를 표명한 네타냐후를 비난하 성명은 이스라엘수상 네타냐 후를 우두머리로 하는 유태복고 이에 바빠난 네타냐후는 자

기는 원칙적으로 팔레스티나국 가를 배격한것이 아니라 팔레 장하고나서 국제공동체가 이스 스티나당국이 이슬람교그루빠

인 하마스와 정치적으로 협력 한 현 상황하에서는 팔레스티 나국가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였을뿐이라고 변명해나섰 다. 그러면서 자기는 단일국가 해결책을 바라지 않으며 지속

린 소리를 줴쳤다. 그가 아무리 번지르르한 미사 려구를 늘어놓아도 그의 말을 곧이들을 사람은 없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은 네타

적이고 평화적인 두개국가해결

책을 바라고있다고 입에 침발

냐후의 말과는 달리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체포 소동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지난 2일 이스라엘군은 요르 단강서안지역의 라말라흐시에 서 팔레스티나국민리사회 성원

의 집에 뛰여들어 수색을 벌리 던 끝에 그를 체포해갔다. 이로써 이스라엘당국은 16 명의 팔레스티나국민리사회 성 원들을 부당한 구실로 감금하고

있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고의적으로 팔레 스티나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면 서 지역정세를 극단에로 몰아가 고있다. 유태인정착촌확장문제

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이스라엘은 이미 수십년전에 팔레스티나의 많은 지역을 강 점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령토

팽창야망을 집 발 요하게 추구하 면서 이 지역에 서 유태인정착촌건설을 강행하 여왔다.

이스라엘의 강도적인 령토강 탈책동과 팔레스티나인들에 대 한 탄압소동으로 하여 수많은 팔레스티나인들이 목숨을 잃었 으며 피난민이 발생하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중

동정세악화의 원인이 이스라엘 의 령토팽창책동에 있다고 하면 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이스라엘 은 유태인정착촌들에 주택을 새

로 건설할데 대한 결정을 발표

하였다. 이에 대해 유럽동맹은 팔레스 티나의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 는 유태인정착촌들에 450채 의 주택들을 새로 건설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할것을 이스라엘 에 촉구하면서 정착촌건설결정 이 리행되는 경우 두개국가해결 책의 실행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지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착촌건설이 국제법에 위반되고 평화보장에 장애로 된 다.》,《이러한 결정은 가뜩이 나 불안정한 지역의 긴장상태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고 충

제반 사실들은 이스라엘이야 말로 중동평화의 파괴자라는것 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고하였다.

림 원

[|] 어야 한다는 격이다.세상에 이 ¬-510579 (정기간행물번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제회조 (정기간행물발송투별) 전 화: 교환 373-0263, 농업부 373-5628, 파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